

2010.5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대전 MBC

2010년 5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국명 :대전문화방송

1. 회의개최

일시	장소	참석인원 수		비고
		위원	방송국	
2010.5.25	대전MBC 대회의실	10/11	8	

- 시청자위원 불참자(1명) 명단 : 여운철 위원
- 방송사 주요참석자 명단 : 고대석 사장, 이상헌 전략기획실장, 박선자 방송본부장, 서영석 뉴스센터장, 김미리 편성제작센터장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건수)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3	6	1	-	6	16	-	16

나. 사업자 반영(건수)

구분	수용	의견참고	반론	계
건수	11	4	1	16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 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 월
계	3건	3건	
보도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이 최선의 선택 할 수 있도록 역할 요청	후보자 초청 토론회 15차례 편성 및 라디오 '시대공감' 후보자 릴레이 인터뷰, 쟁점 공약별 기획 보도 방송	'10.4월
방송편성	사회적 현안인 4대강 사업과 금강보호, 다문화가정, 고령화 문제에 대한 지속적 관심 요구	금강보호 캠페인 제작 및 다문화 가정 기획보도 방송	'10.4월
교양	생방송 전국시대 정적인 진행 비판	6월 프로그램 부분 조정 시 아이템 교체와 진행 방식 개선	'10.4월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 청 내 용	조 치 내 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사항 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성 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해당사항 없음	

3.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관련 공개 청구

요청자(단체)	공개내용	공개방법
	해당사항 없음	

나. 시청자위원 변동사항

구분	성명	전·현직	추천단체	추천부분	변동사유
		해당사항 없음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에 대한 답변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기타	<p>○ 6기 시청자위원회 첫 회의니 만큼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MBC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많았다. 특히, 지식인층이 예전에는 열심히 봤는데 안본다고 하더라. 앞으로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방송이 되도록 칭찬보다 싫은 소리를 많이 하겠다. (장인순 위원장)</p>	<p>○ 특정 계층의 시청자들이 외면하고 있다는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여 앞으로 폭넓은 시청자층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p>	수용
방송편성	<p>○ 자체 제작하는 TV 드라마가 전혀 없다. 지역방송에서 드라마 하나 잘 만들면 전체 회사의 역량을 커버할 수도 있다. 드라마 제작 검토 바란다. (유치벽 위원)</p>	<p>○ 올해 대백제전에 맞춰 작년에 서울MBC, 충남도와 백제 관련 드라마 제작을 협의했으나 이루어지지 못했다. 드라마의 특성상 지역에서 제작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장기간 기획을 거쳐 제작을 검토하겠다.</p>	수용
교양	<p>○ 라디오 프로그램 '즐거운 오후 2시'에서 매발톱꽃이라는 생소한 단어가 나오자 제작진이 바로 검색해 자세한 정보를 쫓는데 정말 좋아 보였다.(유치벽 위원)</p>	<p>○ 생방송 라디오의 특성상 민첩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이 많은데 차후에도 빠르고 정확한 정보 확인을 하겠다.</p>	의견참고
기타	<p>○ MBC 노조 파업으로 빚어진 방송차질이 바로 시청자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다. 일단 잠정 중단됐지만 불씨도 여전하고, 대전도 이 문제와 전혀 관련 없지 않은 만큼 파업이 더 크게, 길게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고 생각된다.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자본과 정치권력에서 독립해야 한다는 공영방송의 취지를 잊지 않았으면 한다.(김재영 위원)</p>	<p>○ 선거를 앞두고 파업은 중단된 상태여서 최대한 선거방송에 집중하고 있으며 선거 이후에는 조직을 안정화시키고, 노사관계를 재정립해 지역과 함께하고 지역민의 사랑을 받도록 노력하겠다.</p>	수용
기타	<p>○ 연내 종편 출현과 함께 미디어랩 도입되면 경쟁체제 불가피하기 때문에 대전MBC 환경은 더 어려워질 게 뻔하다. 회사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다. 유치벽 위원이 제안한 드라마 제작 등 거점 프로그램 개발에 힘써 달라. KNN이 제작하는 재연 프로그램은 지역민을 출연시켜 시청률도 높고, 여러 채널에 판매되고 있다.(김재영 위원)</p>	<p>○ 앞으로 프로그램의 수익 창출이 중요한 화두라는 점에 공감한다. 따라서, '이야기쇼 타임워프'처럼 모든 세대에게 향수와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으며 현재 지역MBC 4사(청주, 충주, 춘천, 전주)에 판매 중이다. 앞으로도 지역사, 케이블 등에도 판매해 당사의 거점 프로그램으로 만들겠다.</p>	수용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보도	<p>○ 병원에 근무하다 보니 보도(뉴스)의 경우, 기자가 미리 결론지어 놓고 인터뷰하는 경우가 많다. 다양한 가능성 열어놓고 취재하길 바란다.(신현대 위원)</p>	<p>○ 의료사고나 홍보성 기사를 대할 때 기자가 예단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발생한 일로 내부적으로 지도하겠다.</p>	수용
기타	<p>○ 미국에 거주할 때 보니, 중앙지와 중앙방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역신문, 지역방송을 봐야 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대전MBC도 프로그램 제작할 때 시청자가 '내가 안보면 손해'라는 생각이 들도록 해 달라.(신현대 위원)</p>	<p>○ 보다 지역과 밀착된 프로그램 제작으로 지역민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정보와 현안 및 대안 제시 등을 통해 시청자의 만족도를 높이겠다.</p>	수용
기타	<p>○ 홈페이지를 보니 대전MBC의 지향점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부대사업만 나열했을 뿐, 방향성도 보이지 않았다. 반면, TJB(대전방송)은 지역 밀착형 방송으로 인식되고 있어 개선 필요하다.(김진국 위원)</p>	<p>○ 홈페이지 개편 작업이 진행 중이며 6월 초 선보일 예정이다. 개편된 홈페이지에는 전면에 당사의 올해 10대 기획과 캠페인 등을 내세워 이용자들의 대전MBC의 방향성과 정체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p>	수용
보도	<p>○ 2,3년 전까지 MBC만 보다가 최근 KBS만 보고 있다. 중앙 방송에서 다른 뉴스를 지역에서 똑같이 다루는 경우가 있는데 중복 취재는 피해 달라. 지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을 방송했으면 한다.(방기봉 위원)</p>	<p>○ 서울에서 방송된 뉴스 가운데 일부는 지역에서 발생하거나 지역민의 생활과 관련된 것도 있어 불가피하게 같은 내용을 다룰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앞으로 형식과 내용을 각색해 중복된 느낌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다.</p>	수용
보도	<p>○ 학부모의 한 사람이자 대전 토박이 시청자로서 아이들이 방송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앞으로 교육 분야에서 대전MBC가 아이들, 학부모의 의견을 귀담아 전달하길 바란다.(김경옥 위원)</p>	<p>○ 방송의 과급력과 영향력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앞으로 교육 뉴스를 강화하는 등 교육 분야에 지속적 관심을 쏟겠다.</p>	의견참고
방송편성	<p>○ 서울에서 방송하는 아침드라마가 막장드라마로 변질돼 폐해가 심각하다. 1960년대 일본에서 시작된 편성 전략을 그대로 따라한 것인데 여성 취업률이 높아진 지금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고 본다. 실제 아침 시간대 TV시청층을 분석해 대전MBC가 국내 최초로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드라마를 제작. 편성해 보길 제안한다.(김경숙 위원)</p>	<p>○ 드라마의 특성상 높은 제작비, 캐스팅, 노하우, 광고 유치 등 대량물량이 소요되는 장르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제작하기가 한계가 있지만 장기간 기획을 거쳐 제작 컨소시엄을 발족해 과학 SF 등 대전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충청권MBC와의 공동투자를 활용해 차별화된 드라마의 제작을 검토하겠다.</p>	수용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보도	<p>○ 6.2 지방선거 앞두고 토론회 15차례 방송한다고 했는데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의 정책 소개는 여전히 미약하다. 투표 전날이 가장 중요한 만큼 뉴스를 제대로 활용해 달라. 각 후보들의 핵심 공약 비교표를 제시해주면 더욱 좋을 것 같다.(김경숙 위원)</p>	<p>○ 핵심공약 비교의 경우, 모든 후보를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지역별로 세종시 문제나 4대강 개발, 백제권 개발, 도심공동화 현상 등을 꾸준히 보도했다.</p>	수용
기타	<p>○ 홈페이지 '다시보기'를 통해 프로그램을 볼 수 있지만 접근성 부족해 보인다. KBS는 스마트폰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선보였는데 대전MBC도 이처럼 변화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 같다.(김경숙 위원)</p>	<p>○당사가 직접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거나 스마트폰 전용 홈페이지를 신설하는 것은 비용과 기술적 검토가 필요한 작업이다. 따라서, 서울 본사와의 협의와 제작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p>	의견참고
보도	<p>○ 최근 대.내외적 상황의 여파로 대전MBC가 자기 검열기능을 너무 강화해 흑역 앞으로 MBC 뉴스가 재미없어질까 걱정된다. 예방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시청자위원으로서 최대한 권한 행사하고, 직무에 충실하겠다. 모니터에 적극 임할 것이고, 집중 모니터링도 도입하겠다.(안정선 위원)</p>	<p>○ 경영진이나 광고주 눈치를 살피는 보도는 철저히 배제하고 있으며 항상 열린 마음과 열린 귀를 갖고 내부모니터와 외부모니터링을 수용하겠다.</p>	의견참고
보도	<p>○ 지방선거를 앞두고 노조 파업이 끝나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시청자 없는 방송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을 가슴에 새겨달라. 특히, 15차례나 토론회를 편성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남은 선거방송에서도 보다 많은 정보를 시청자에게 전달해 주길 바란다.하지만 토론회 뒷배경이 야경으로 제작. 방송되는 데 낮방송일 경우, 다른 배경화면을 넣으면 좋을 것 같다.(김영광 부위원장)</p>	<p>○ 토론회 뒷배경은 고정세트이기 때문에 낮과 밤을 가려 세트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특히 선관위 주관 방송은 기본세트가 정해져 있어 불가능하다.</p>	반론
방송편성	<p>○ 대전MBC가 시청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에 동조한다. 특히, 과학도시라는 대전의 특성을 살려 우주산업이나 원자력 등을 소재로 다룬 드라마를 제작하면 어떨까 싶다. 꼭 드라마가 제작비가 많이 든다고는 생각 안한다. 대전문화재단 등과 협조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장인순 위원장)</p>	<p>○ 보다 정밀한 시장 조사와 시청자 서베이가 필요한 만큼 사전 타당성 조사를 거쳐 청사진을 마련해 충청권역 MBC 제작회의를 통해 필요성을 공유하겠다.</p>	수용